

#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

- 『옥추경(玉樞經)』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박용철

대진대학교 · 교수

- |                    |                     |
|--------------------|---------------------|
| I. 여는 글            | III. 중국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
| II. 조선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 신앙 수용과 비판           |
| 신앙 수용과 비판          | IV. 닫는 글            |

## I. 여는 글

기유년(1909) 증산께서 화천 하신 후 지금까지 증산을 신앙하는 종단이 100여 개 이상 창설되고 소멸되어왔지만, 현재(2013)는 대순진리회 등 수 개의 종단만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산께서 화천 후 100여 년의 종단사에서 신앙의 진리체계를 개괄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 증산에서 조정산(조철제, 1895-1958)으로 종통의 맥을 삼는 ‘무극계열(无極系列)’<sup>1)</sup>과, 둘째 증산의 친자종도(親炙從徒)인 고수부(고판례:고부인, 1880-1935) 등을 종통의 맥으

1) 『전경』(1974), 교운 2장 32절, “을축년(1925)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无極道)를 창도 하시고”

로 삼는 ‘증산계열(甞山系列)’로 나누어진다.<sup>2)</sup> 이렇게 나누어진 두 계열이 신앙하는 진리체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무극계열’의 신앙체계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께서 인간 강증산으로 강세하시어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마치시고 화천하셔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제위에 임하셨다는 것이다.<sup>3)</sup> 그렇지만 ‘증산계열’은 대부분 ‘옥황상제(玉皇上帝)’께서 인간 강증산으로 탄강하시어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화천하셨다는 신앙이다.<sup>4)</sup>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신앙하는 두 계열 중 어디가 올바른가를 판단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본 연구는 두 신앙 간의 시비와 우열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인물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분명 다르다는 사실은 그 동안 공통점에 주목해 동일한 유사한 종교현상으로 간주하던 두 신앙 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그 신학적 관점이 동일하게 도교 신격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도교 내에서 두 신격, 즉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옥황상제’의 신학적 의의가 매

- 
- 2) 증산과 연관된 신종교 연구에 있어 무극계열과 증산계열의 구분은 일반적이지 않다. 하지만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신앙하는 대순진리회 전통과 옥황상제로 신앙하는 다른 전통 간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종교적 사상적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전통을 하나의 계열로 이해하는 분류법에 대하여 필자는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분류법으로 기존의 증산계열과 무극계열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①惟我聖師는 應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 從至氣而願爲大降于世하사 朴景浩 等 謹抄, 『太極道通鑑』(부산: 태극도본부, 1956), p.2. ‘太極道趣旨書’, 九年間天地公事를 行하시고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帝位에 昇化臨御하시니 卽 姜甞山上帝이다. 같은 책, p.8. ‘起源’  
 ②『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p.8. ‘취지’  
 ③『전경』, p.201. ‘교운2장 32절’
- 4) ①경술(1910)년 9월 초 사건: 고부인 약간의 주과포를 준비하여 들리고 구릿골 뒷산 초빈앞에 당도하였다. … 부인이 몸소 초빈을 헤치고 … 부인이 준비하여 가지고 왔던 진주를 입술 안에 넣고 한삼을 가슴에 덮고 “玉皇上帝”라고 쓴 양지 쪽을 그 위에 덮고 … 치전하고 초빈을 다시 봉한 뒤에, 이정립, 『증산교사』(전북: 증산교본부, 1977), p.46.  
 ②교조 증산대성을 ‘옥황상제’로 신봉하는 초기 교단의 교도들(증산계열)의 신앙 목적은 첫째는 ‘옥황상제’의 신도적 권화에 의한 신화도통이요, 둘째는 ‘옥황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여 … 『普天教誌』(보천교, 1964), p.39.

우 다르다는 사실은 두 계열의 차이점이 도교내의 두 신격의 거리만큼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옥황상제’라는 이 두 도교 신격에 대한 연구는 두 계열의 차이점을 밝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옥황상제’께서 강증산으로 강세하였다고 믿는 ‘증산계열’과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종통을 계승한 도주 정산을 ‘옥황상제’로 신앙하는 ‘무극계열’의 신앙체계는 관련된 도교 신격과의 연계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따라 그 신학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증산계열’에서 증산의 신격이라 믿는 ‘옥황상제’가 중국 도교의 ‘옥황상제’와 같은 신임을 전제한다면 중국 도교에서 ‘옥황상제’<sup>5)</sup>보다 더 높은 신으로 신앙되는 3분의 존재를<sup>6)</sup> ‘증산계열’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5) ①玉皇大帝, 全称为昊天金阙无上至尊自然妙有弥罗至真玉皇大帝, 也称昊天金阙至尊玉皇大帝, 玄穹高上玉皇大帝, 简称玉皇, 玉帝, 其圣诞为农历正月初九。玉皇大帝执掌天上枢机总政, 统辖天神, 地祇, 人鬼, 总管三界, 十方, 四生, 六道的一切阴阳祸福。玉皇殿中, 玉皇大帝的塑像为身着九章法服, 头戴十二行珠冠冕旒, 手捧玉笏, 端坐龙椅, 两侧为侍者金童和玉女。玉皇大帝在道教神仙系统中虽然地位不及“三清”尊神, 但在民间宗教信仰中却作为最高神待。(옥황대제의 완전한 칭호는 ‘호천금궐무상지존자연묘유미라지진옥황대제’로 불리우고 또 ‘호천금궐지존옥황대제’, ‘현궁고상옥황대제’라고도 불리우며, 간략한 칭호는 ‘옥황’, ‘옥제’라 불리우며, 그 탄신일은 농력정월초야호례이다. 옥황대제는 천상의 주요한 모든 정치를 담당하며, 천신, 지기, 인귀를 통할하고, 삼계, 십방, 사생, 육도의 일체 음양화복을 관장한다. 옥황전에 있는 옥황대제의 상은 몸에 구장법복을 걸치고 있고, 머리에는 12줄의 구슬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옥홀을 잡고 있고, 용좌에 단정히 앉아있으며, 양측에는 사자인 금동과 옥녀가 있다. 옥황대제는 도교신선계통중에서 비록 지위가 “삼칭”존신에 미치지 못하지만 민간종교신앙속에서 오히려 최고신으로서 대접받고 있다.) 張夢道 編著, 『図解 道教』(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p.128.

②송대가 되면서 우선 특기할 만한 사건은 송 조정에 의해서 송의 조상신으로 도교의 옥황상제가 봉안되는 점이다. 당대에 노자를 조상신으로 모신 데에 맞서기 위해, 당시에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옥황상제를 포섭해서 조상신으로 삼은 것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옥황상제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고려조 후로 우리 민족의 하느님처럼 되어 버린 사실이다. 최준식, 『한국종교의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p.402.

6) 确立‘三清’体系：『灵宝经』的问世, 在道教中形成一个新的派别, 即灵宝派。它的神仙信仰有别于天师道, 尊奉元始天尊, 太上大道君和太上老君为最高的神, 后来, 这种神仙信仰的体系逐步被道教的其他组织所接受, 形成了‘三清’体系, 即玉清元始天尊, 上清灵宝天尊(太上大道君), 太清道德天尊(太上老君)。(삼칭체계의 확립: 『영보경』의 출현은 도교에 있어서 새로운 유파를 형성했는데, 그 파가 바로 영보파이다. 그 파의 신선신앙은 천사도와 다른데, 원시천존, 태상대도군과 태상노

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문제가 ‘무극계열’, 즉 대순진리회 전통의 신앙체계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대순진리회 전통의 신앙체계는 ‘증산계열’과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주 정산께서 을축년(1925)에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하시면서 신도들에게 화천 후의 신위를 밝혀주셨지만<sup>7)</sup> 이 신위는 ‘옥황상제’와는 달리 당시의 종교문화 내에서 주류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학자 및 ‘증산계열’ 사람들이 ‘무극계열’의 신앙대상에 대해 잘못 오인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sup>8)</sup> 또 다른 특징은 강세 전의 신위와 화천 후 신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산이 신위 봉안 31년 후인 병신년(1956)에 『태극도통감』을 통해 ‘구천대원조화주신’이 강세 전 신위임을 문헌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sup>9)</sup>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는 『옥추경』에 나타난

군을 최고신으로 받들며, 그 후에 이러한 신선신앙의 체계는 차츰 차츰 도교의 다른 조직(계통)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고, ‘삼청’체계를 형성했는데 그 체계가 바로 옥청원시천존, 상청영보천존(태상대도군), 대청도덕천존(태상노군)이다. 같은 책, p.72.

7) 『전경』, 교운2장 32절.

8) ① 무극도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無極大道教概況』으로 박상규는 그 작성 시기를 1925년으로 추론하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무극도의 신앙 대상인 증산의 신격에 대한 것은 없다.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의 특성」, 『한국 종교교단의 조직』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13), p.139-140.

② 村山智順은무극도에서‘강증산’을‘옥황상제’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도통의 노력은 강일순의 모범을 따라서 허령(虛靈), 지각, 신명의 3단계를 다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강일순이 ‘나는 옥황상제의 재생이고 나는 미륵불의 재생이다.’고 교시한 말에 따라 신인의 영역에 다다른는 (개오하는) 것이다”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1935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273.

③ 이정립 역시 무극도의 창시자인 정산이 강증산을 ‘옥황상제’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달동안 폐백도수(幣帛度數)를 행(行)하라고 명(命)하니 곧 매일(每日) 새벽에 청수(淸水)를 올리고 봉축주(奉祝呪) ‘일심봉축(一心奉祝) 삼계(三界) 혼원세계(混元世界) 삼계(三界) 해원세계(解冤世界) 음양오행(陰陽五行) 태극도성(太極道成) 역조세(億兆歲) 무강성수(無疆聖壽) 천지인(天地人) 대판주(大判主) 옥황상제(玉皇上帝) 성령지하(聖靈之下) 철제(哲濟) 정도령(正道令) 우일대사(宇一大事) 즉주성취(卽卽成就)케 하여 주옵소서’ ...” 이정립, 앞의 책, p.134.

9) 『태극도통감』, p.8, ‘惟我聖師는 應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 從至氣而願大降于世하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② 연관성이 있다면 도교내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차지하는 위상을 대순진리회 전통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③ 강세 전 신위인 ‘구천대원조화주신’과 화천 후 신위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신위 존칭이 왜 다른가? ④ 왜 1925년에 강세 전 신위와 화천 후 신위를 동시에 표명(表明)하지 않으시고 시간차를 두었는가? ⑤ 같은 신위라면 존칭과 별칭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신위인가? ⑥ 다른 신위라면 같은 위격의 신위인가, 아니면 강세 전 신위가 더 높은 것인가, 화천 후 신위가 더 높은 것인가?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학문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 글은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기획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와 이와 연관되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기 전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관련된 신앙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면서 변천되어 왔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기존의 신앙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순진리회 전통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신앙에 대해 논의를 할 경우 이는 자칫 비합리적 논리 모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가 기존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관련된 종교 현상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없이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와 『옥추경』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비교만으로 다른 신격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도교와 관련된 신위들<sup>10)</sup> 및 의례 등의 전통을 대순진리 이해를 위해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반대의 견해

10) 옥황상제, 48장, 관성제군, 28수 신명, 24절후 신명, 천상옥경천존신장, 천상벽약사자 등

도 대순진리 전통을 도교에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방향을 가지게 되어 대순진리의 독특성을 묵과하고 그 진리 및 신학체계 전반을 오해 하는 연구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종교 현상 전반을 다루는 것은 이미 동아시아 도교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기에 필자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제도권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왔는지에 천착해 보고자 한다. 도교학자라면 누구라도 인정하겠지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종교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옥추경』을 제외하고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의의 중심에 『옥추경』에 대한 제도권의 수용과 비판이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신앙과 『옥추경』의 위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이 도교 전통 내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옥추경』이 지녔던 주류 종교현상으로서의 위상을 한국의 도교 및 대순진리회 전통 연구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필자에 앞서 이미 구중회가 『옥추경 연구』를 통해 『옥추경』에 관한 혼란과 오해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 『옥추경』에 대한 혼란과 오해를 재조명하는 데 많은 부분 구중회의 연구에 빚을 지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재조명의 목적은 구중회의 연구를 반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옥추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증산과 관련된 종교현상 연구가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옥추경』에 대한 제도권의 비판적 인식 성립 과정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 II. 조선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 수용과 비판

조선 때 법전 『경국대전』<sup>11)</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도류(道流) 금단(禁壇)은 암송, 영보경(靈寶經)은 독법, 연생경(延生經), 태일경(太一經), 옥추경, 진무경(眞武經), 용왕경(龍王經) 가운데에서 3경은 뜻 해석을 한다.<sup>12)</sup>

위의 글은 소격서 관리를 뽑기 위한 도류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 정5품부터 종9품의 문관을 뽑았다고 한다.<sup>13)</sup> 이 내용은 조선 초에 『옥추경』이 제도권 특히 조선 왕조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조실록』에 등장하는 ‘뇌성보화천존’에 대한 다음의 기록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옥추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신앙의 제도권내의 위상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비를 비는 방법이 비록 많으나 뇌성보화천존에게 비는 것이 절실하오니<sup>14)</sup>

뇌성보화천존에게 기우하는 초제를 행하였다<sup>15)</sup>

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초제를 지내고<sup>16)</sup>

서거정(徐居正:1420-1488)이 성종 임금을 대신해서 적은 『昭格署雷聲普化天尊祈雨青詞』에 … 농사하는 것은 나라의

11) 『경국대전(經國大典)』: 세조(재위1455-1468) 때 최항 등이 시작하여 성종2년(1471)에 완성되어 반포되고 성종 16년(1485)에 간행됨. 구중회, 앞의 책, p.153.

12) 『경국대전』 권지3 예전 취재조. 같은 책, p.153.

13) 성현 『용재총화』 권지 이전(吏典), 경관직조(京官職條)에 ‘소격서는 삼청성진초제(三清星辰醮祭)를 담당했는데 관리는 정5품의 영(令) 1명, 정6품과 종 6품의 별제(別提)가 각각 1명, 종9품의 참봉(參奉)이 2명이 있었다.’ 같은 책, pp.154-155.

14) 『세종실록』 9년(1427) 6월 11일 조목, 같은 책, p.147.

15) 『세종실록』 25년(1443) 7월 6일 조목, 같은 책, p.148.

16) 단종(1441-1457, 재위 1452-1455) 3년 5월 19일 기록, 같은 책, p.149.

근본이라. 한 가지는 곡식만 익지 않아도 흉년이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 되는지라. 사흘만 먹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지거늘 지금 동작의 철을 잃었으니 어떻게 다시 서성을 바라리오. … 정이 가슴 속에 격동하매 오직 명령은 상제의 마음에 있사옵니다. … 이 초사는 임금의 입장에서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존에게 올리는 글이다.<sup>17)</sup>

위의 3가지 글은 ‘뇌성보화천존’<sup>18)</sup>과 ‘기우제’에 관한 글이다. 동양의 고대 국가에서 농사는 백성들의 생명이고, 이는 임금의 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은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 풍년이 들게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태종이 기우제를 통하여 죽으면서 내린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하고 1996년 대하드라마에서 ‘용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상영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나라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기우제에서 비를 청하기 위해 비는 대상이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뇌성보화천존’이었다는 점은 당시의 제도권에서 ‘뇌성보화천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조선 초의 제도권 도교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옥추경』이 차지하는 위상이 주류적이었음에도 1996년 김승동(金勝東)이 펴낸 『도교사상사전(道敎思想辭典)』은 『옥추경』은 첫째 도가의 위서(僞書), 둘째 도교에 가탁(假託)하여 꾸며 낸 것, 셋째 중국 본래의 도교 경전에는 없는 것, 넷째 후인이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9)</sup> 하지만 이것은 실록의 기록만으로도 사실과 다름을 알

17) 같은 책, pp.151-152.

18) 세 단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구천보화천존, 뇌성보화천존)의 설명은 ‘옥추경’과 관련됨을 알 것이다. 이들 단어 이외에도 ‘구천(九天)’ ‘구천응원(九天應元)’ 등이 보인다. ‘구천’을 설명하는 전거로 이 사전은 1) 『초사(楚辭)』 「이소(離騷)」, 2) 『영보동현자연구천생신장경(靈寶洞玄自然九天生神章經)』, 3)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 4) 『영보필법(靈寶畢法)』, 5) 『옥추보경집주』 등을 들고 있다. ‘구천응원’도 역시 『옥추보경집주』이다. 결국 이들 다섯 단어는 각각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신체(身體)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p.227.

19) “『옥추경(玉樞經)』 : 『옥추보경(玉樞寶經)』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에는 점복·제사에 쓰이는 도가(道家)의 위서(僞書). 조선 시대에는 맹인·박수들이 점을 치거나 제사·기도를 드릴 때 흔히 도·불 혼합의 주문을 외웠는데, 그 중에 도교에 가탁하여 꾸며 낸 것 가운데 하나가 『옥추경』이다. 이것은 중국 본래의 도교

수 있다. 원인은 이 글이 단순히 조선 후기 및 20세기 초의 시각을 인용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인의 근원지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도교사』의 저자인 이능화를<sup>20)</sup> 만나게 된다.

이능화는 1839년에 탈고하여 완성한 이규경<sup>21)</sup>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sup>22)</sup>를 인용하여 『옥추경』을 도가의 ‘위서(僞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능화는 『옥추경』이 ‘위서’라는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조선도교사』에서 위서라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지만<sup>23)</sup> 본인의 견해를 밝힌 구절은 한 구절에 불과하며<sup>24)</sup>,

경전에는 없는 것으로, 소위 『뇌성보화천존법어(雷聲普化天尊法語)』를 칭하여 후인이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 김승동 편저, 『도교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p.685.

20) 이능화(李能和:1868~1945)는 『조선불교통사』(1918), 『조선무속고』(1929), 『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 등 많은 저서를 남긴 일제시기의 학자이다. 활동한 시기로 볼 때 안확(安廓)과 더불어 계몽시대 사학자로 지칭되기도 한다. 또한 분류사(分類史)를 중심으로 그 나름대로 학문적인 세계를 개척했으나 전통적인 방법의 자료 수집과 정리에 치우치고, 특히 민족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능화 [李能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1) 이규경(李圭景:1788~1856?)은 정조의 총애를 받은 이덕무(李德懋)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정밀한 고정(考訂)과 변증(辨證)으로 조선 후기 실학의 영역을 넓혔다. 백과전서파로도 불린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기(伯揆)이며 호는 오주(五洲)·소운거사(嘯雲居士)이다. 조부는 이덕무인데 그는 북학파의 한 사람으로 고금의 제자백가와 기문이서(奇文異書)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도 새로운 조류를 일으켜 문명(文名)을 일세에 떨친 실학자였다. 아버지 광규(光葵)는 할아버지의 유고를 편집했으며 검서관(檢書官)으로 규장각에 봉직했다. 그는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를, 특히 할아버지의 학문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규경 [李圭景]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2) 이규경은 1832년(순조 32) 병으로 요양 중에 예전에 써둔 원고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여, 1834년 가을에 『오주서종(五洲書種)』의 ‘금석’(金石)과 ‘옥석’(玉石) 부분을 완성했고, 1839년(헌종5) 가을에는 ‘군사 기술’ 부분을 완성했다. 그 후 우리나라 및 중국, 그 밖의 고금사물(古今事物)을 의의가 있거나 고증의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저술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두산백과)

23) “(三) 『옥추경(玉樞經)』은 도가(道家)의 위서(僞書) : 소운거사 이규경(嘯雲居士 李圭景)이 지은 오주연문(五洲衍文) 도서변증설(道書辨證說)에 이르기를, 포박(抱朴子)과 성식(段成式) 도경목록(道經目錄)에 옥추경(玉樞經)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두광정(杜光庭)의 무리가 잘못 썼기 때문에 실리지 않은 것은 아닐까. 왕감주 세정(王弼州 世貞)의 글에 옥추경은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의 법어(法語)라고 하였으니 이는 두광정의 위찬(僞撰)이라 하겠다.” 이능화 편술, 『조선도교사』, 이종은 역주 (서울: 보성문화사, 1996), p.269.

24) “『옥추경』 중에 사대(四大-사람의 몸)를 거두지 못하고 -신에게 맹세하고 부처에게 저주하여- 무덤을 송사(訟詞)하고 기록한다는 등의 문귀는 아마도 후인

그 구절조차도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단지 왕세정의 견해에 찬동한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능화나 김승동이 학문적인 천착(穿鑿)을 통하여 『옥추경』을 언급한 것이 아님을 볼 때 그들의 평가는 단순 인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적인 관점에서 조선에서의 『옥추경』에 대한 위서론의 시작은 이규경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옥추경』에 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이것은 이규경이 학문적 천착을 통하여 『옥추경』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sup>25)</sup>, 단지 중국 명나라 왕세정(1526-1590)의 말을 가져와 위서론을 제기하였음을 알려준다.

결국 문헌적인 검토를 해 보면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옥추경』 위서론은 이규경이 1839년 탈고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번져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옥추경』에 대한 잘못된 오인이 학자들에 의해서만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옥추경』이 ‘위서’로 오해 받은 60여 년 이전부터 ‘역적서’로 취급당해왔다는 역사적 자취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영조(재위 1724-1776) 시절에 『옥추경』을 집에 두었다는 것만

의 위찬(僞撰)일 것이니 왕세정의 말이 옳은 듯하다.” 이능화, 앞의 책, p.269.

25) 이규경은 다음과 같이 옥추경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옥추경이 별도로 한 책이 있다”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옥추경이라고 칭하면서 비밀히 간직하여 전하여 주지도 않고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다. 아직 진본인지 위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그럴 듯한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대옥추경도 우리나라에 입수되어 간직한 자가 있다”한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를 보면 명나라 진미공(陳眉公)이 옥추경 주를 달면서 사방의 광명뇌왕을 칭하였다. 옥추경 주에 (중략).....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행 옥추경에는 이런 주석이 없으니 아마 따로 한 책이 있는가 보다. 감주 왕세정(王世貞)의 저서에는 “구천응원 너성보화전준옥추경이니 당나라 때의 두광정(杜光庭)이 위작한 것이다”하였으니 현행 옥추경은 바로 두광정이 지은 위서이다. 또 도장이나 석전의 옥추경이 모두 다르니 진본과 위본이 혼돈된 이상 누가 그에 대한 판별할 수 있겠는가? 삼교의 경전들이 번번이 이런 것이 많으니 일체 의심스러운 그대로 전하여 줄 수 밖에 무슨 변증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짐작컨대 어떤 도사가 도가의 학설을 대략 주위 모아 옥추경을 편집하여 벽사하는 방술로 삼아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수행하는 행각이 되어 장삼을 걸치고 밥을 벌여먹는 자료로 하였던 것인가 보다.” 구중회, 앞의 책, pp.23-24.

으로도 ‘역적’으로 몰릴 지경이었고, 조선 후기사회가 되면 ‘좌서(左書)’로 묶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sup>26)</sup> 다시 말하면 1839년 이전에 실학자 이규경이 ‘『옥추경』을 위서로 몰고 갈 명분이 될 만한 정치·사회적인 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제 군주 정치하에 있었던 조선과 중국에서 군주의 행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옥추경』과 연관된 정치·사회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은 『옥추경』에 대한 제도권의 인식 변화와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다. 『옥추경』이 제도권에서 비판적으로 인식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실마리는 영조 46년(1770)에 완성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문헌비고』: 영조21년(1745)에 임금의 특명으로 맹제(盲祭), 독경제(讀經祭), 맹인기우제(盲人祈雨祭), 무녀기우제(巫女祈雨祭) 및 임금의 거처를 옮길 때의 맹인 독경제를 모두 폐지하라 하였다.<sup>27)</sup>

위의 1745년의 사건 기록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옥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선도교사』 ‘제22장 도교와 맹인(盲人)의 관계’를 본다면 위의 사건이 『옥추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중국사람이 따르지 못할 것이 있으니 말하자면 맹인도 짐을 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서는 「맹인이 복을 빌고 도액(度厄)하는 것은 옛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었고 중국에서도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말과 『이조실록』에 맹승과 관련된 기록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조선에서의 맹인에 대한 배려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나라에서 설정한 맹승(盲僧), 또는 도류승(道流僧)이라고 불리는 맹승단체가 있었다. 맹승의 칭

26) 같은 책, p.13.

27) 이능화, 앞의 책, p.265.

호는 선사(禪師)라고도 하였으며 나라에서는 맹승으로 하여금 나라에 가뭄이 있으면 비를 오게 기도하게 하고, 질병이 번지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또는 맹인으로 하여금 독경(讀經)과 축수(祝壽)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라의 옹호를 받는 맹승들이 읽는 경은 불가나 도가의 경이었다. 그렇지만 ‘맹승들은 『천수경(千手經)』이나 『팔양경(八陽經)』은 간간히 외우기는 하나 전적으로 외우지 않고 전문적으로 읽는 경은 『옥추경』 뿐이다.’

조선 영조21년(1745)까지 국가로부터 우대를 받는 맹승들이 ‘전문적으로 읽는 경은 『옥추경』 뿐이다’라는 글에서 맹승들의 사회적 대우가 『옥추경』의 위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영조 시대에 맹승들이 영험을 빙자한 사회적인 해악을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옥추경』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맹승들이 끼친 해악이 영조 때 가장 많이 나타나서 영조는 맹인에 대한 일을 모두 폐지하고, 맹인이 가장 애용한 『옥추경』을 ‘역적서’로 몰아가서는, 정조 때 자연히 『옥추경』을 ‘좌서’로 묶었다는 추론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론은 그 근거가 미흡하고 비약이 심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조실록』 영조21년(1745)의 기록에서 맹인에 대한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영조21년 이전에 맹인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사례 또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조실록』에 나타난 다음의 내용은 맹인들로 인한 ‘좌서화’에 대한 근거를 더욱 더 희박(稀薄)하게 한다.

임술년(1742) 4월 정미(18)일. 장령 리봉령이 글을 올려 전염병의 재변에 대하여 극력 말하고 전염병귀신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을 거행하자고 청하였다. 그 의견을 따랐다.<sup>28)</sup>

임술년(1742) 7월 정축(20)일.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에서

28) 『이조실록』 (평양: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1993), 310권, p.380.

소중한 것은 종묘와 사직인데 내가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이 이미 3년이나 된다. 어떻게 귀신을 감격시킬 수 있겠는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대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sup>29)</sup>

임술년(1742) 8월 무자(2)일. 임금이 말하기를 “음악이란 귀신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지금의 아악이 이와 같은 형편이니 마땅히 그들이 태만한 것을 경계해야 하겠다.”<sup>30)</sup>

위의 내용은 영조의 귀신관을 볼 수 있는 기록이다. 이와 같이 영조가 귀신을 중요시하는데 맹인들의 사회적 피해로 인하여 『옥추경』이 ‘역적서’로 전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다른 단서인 ‘역적서’란 표현으로 이를 추론해 보자. ‘역적서’란 표현으로 추론되어 지는 것은 『옥추경』이 정치적인 사건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조실록』에서 『옥추경』이 ‘역적서’라고 규정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찾을 수가 있다.

계미년(1763) 9월 임오(28)일: 양조에게 문서가운데 있는 이상야릇한 글과 이단적인 글에 대하여 신문하니 공술하기를 “신은 물욕을 없애려고 늘 염불을 하는 것이지 간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와 광철 등 여러 역적과 사돈을 맺은 일에 대해서는 속으로 늘 한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역적 지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옥추경』은 여직 읽은 일이 없으며 주인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문하면서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sup>31)</sup>

위의 글은 『이조실록』에서 『옥추경』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즉 『옥추경』이 ‘역적서’로 취급되어져서 문책 받는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옥추경』의 ‘좌서화’

29) 같은 책, 311권, pp.16-17.

30) 같은 책, 311권, p.22.

31) 같은 책, 323권, p.406.

시작은 영조39년(1763) 9월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도세자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이조실록』에서 삭제<sup>32)</sup>하여 남기지 않았으므로 연구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다행이 정조(1752-1800)의 어머니이며 사도세자(1735-1762)의 빈인 혜경궁 홍씨(1735-1815)가 순조5년(71세, 1805) 적은 『한중록』 2권, 3권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근거를 통해 언제부터 『옥추경』이 ‘역적서’로 오인되었는지를 추론 할 수가 있다.

영조28(1752)년, 사도세자 18세, 정조가 태어난 해 설달(음력12월) 15일에서 수 일후: ... 경모궁(사도세자)이 병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어질고 효성스러움이 극진하여 그 거룩함이 미진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병이 나면 곧 탄사람으로 변하였으니 어찌 이상하고 서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경모궁은 매일 경문(經文)과 잡설(雜說)을 지나치게 보았다. “『옥추경』을 읽고 공부하면 귀신을 부린다고 하니 읽어보자.” 경모궁은 밤이면 『옥추경』을 읽고 공부하였다. 과연 늦은 밤에 정신이 어두워져서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이 보인다.”고 말하며 무서워하였다. 그 뒤로 병환이 깊이 드니 원통하고 서러울 뿐이다. 10여 세부터 병이 생겨 음식 잡숫기와 행동하는 것이 다 예사롭지 않았다. 『옥추경』 이후로는 아주 탄사람이 된 듯 무서워하고, ‘옥추’ 두 글자를 보지 못하고 단오에 먹는 옥추단도 먹지 못하였다. 또 옥추단이 들어가도 무서워하시기에 차지 못하였다. 그 후에는 하늘을 매우 무서워하여 우레 ‘뢰(雷)’, 벽력 ‘벽(霹)’과 같은 글자를 보지 못하였다. 예전에는 천둥을 싫어는 하였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옥추경』을 읽은 후에는 천둥이 치면 귀를 막고 엎드려 다 그친 후에나 일어났다. 이런 경모궁의 모습을 부왕과 모친이 아실까 싶어 모든 일이 두렵고 걱정스러웠다. 지금 그 일을 형용하지 못하겠다. 임신(1752)년 겨울에 그

32) 1762년 경모궁(景慕宮, 사도세자)의 죽음은 천고에 없는 변이라. 정조(正祖)께서 1776년 즉위 직전에 영조(英祖)께 상소하시어 “승정원(왕의 비서실)에 있는 그날의 기록을 없애소서”하여 그 기록을 없앴으니, 이는 정조의 효성으로 그날 일을 여러 사람이 아니 보는 이 없이 함부로 보는 것을 서러워하심이라. 그날 일은 이미 사십 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흘러 일의 경과를 아는 이가 거의 죽었으니... 혜경궁 홍씨 지음, 『한중록』, 이선형 옮김 (과주: 서해문집, 2003), p.19.

병이 생겼으며, 계유(1753)년 경계증(驚悸症)을 치렀다. 갑술(1754)년에도 그 병이 때때로 나 점점 고질병이 되었으니, 그저 『옥추경』이 원수였다. ... 33)

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세자의 병은 10여 세부터 시작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혜경궁 홍씨는 11세(1745)부터 남편으로 인한 가슴앓이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752년(홍씨 18세) 『옥추경』으로 인한 병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홍씨는 사도세자가 승하한 해(1762, 홍씨 28세)까지 10여 년 동안 겪은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당시 사도세자가 가진 병의 원인을 부왕 영조에게 두고서 그를 원망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남편이자 다음 왕위 계승자인 사도세자를 원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홍씨는 사도세자의 병이 『옥추경』을 읽음으로써 생긴 것이라 보았고 따라서 『옥추경』을 ‘원수’라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왕위계승자인 세자에게 『옥추경』으로 인한 병이 생겼으니 엄청난 정치적 사건에 『옥추경』이 연루된 것이다. 그렇다면 『옥추경』이 1752년(사도세자 18세)부터 정치적 문제로 비화(飛禍)하여 ‘역적서’가 되었는가? 그렇게는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있다.

<표 1> 혜경궁 홍씨 지음, 이선형 옮김, 『한중록』

페이지	년도와 날짜	내용
P.130	1755(영조31)년 사도세자 21세	소조의 병이 이상한 것을 <u>자모도 자세히 모르시고 부왕께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u>
P.149	1757년	정축년부터 의대병(衣櫛病)이 나니 그 말이야 어찌 다하겠는가.
P.150	1757년 6월	정축년 6월부터 경모궁의 화병이 더하여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33) 같은 책, pp.126-127.

P.162	1758년 2월 27일	그 무슨 병환인가? 천백 가지 병 가운데 옷 입기 어려운 병은 자고도 없는 병이다. 어찌하여 지존하신 동궁께서 이런 병이 드셨는지 하늘을 불러도 알 길이 없었다.
P.177	1761년 정월	신사년 정월에 의대병이 나서 그것(총애하던 현주 어머니 병에)을 죽도록 친 후에 나가셨다. ... 대조(영조)께서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 그 사체를 잠시도 들 수 없어 그 밤을 간신히 새우고 보냈다.
P.208	1762년 윤5월 13일	소조의 병환을 모르시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자 한들 어찌 생무명 거상(居喪:상복)을 입었느냐?” 하시며 크게 꾸짖으셨다.
P.201	1762년 사도세자 28세	임오년 윤5월 13일 신시, 사도세자 뒤주에 들어감.
P.209	1762년 윤5월 21일	소조(사도세자)의 병환은 모르시고 다만 모두 소조께서 불효한 탓만 하셨다. 지극히 원통하고 원통할 뿐이다. 사도세자 승하

『한중록』에서 보면 세자빈 홍씨는 사도세자의 병을 영조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그 날까지 병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62년 윤5월 13일까지는 병이 공론화 되지 않았으니 『옥추경』이 ‘역적서’로 비화될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옥추경』의 수난은 사도세자가 승하한 날(1762년 윤5월 21일) 이후부터라고 봐야 될 것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사도세자를 죽게 한 ‘역적’ 『옥추경』이 져야만 될 것이다. 혜경궁 홍씨를 아낀 영조가 『옥추경』에 대한 홍씨의 한을 부정하였을까? 또 11세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정조가 『옥추경』에 대한 어머니의 한을 부정하였을까? 그 당시 정치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간에 『옥추경』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만 했던 『옥추경』은 당연히 ‘역적서’되고, 또한 ‘좌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옥추경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이 사도세자가 죽은 일 년 후 영조39년(1763) 9월 28일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된 『옥추경』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은 실학이 정치와 생활 속에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시대적인 조류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뇌성보화천존’에게 빌어서 비를 오게 하는 국가적 ‘기우제의 경(經)’으로,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의 경’이나 혹은 ‘선(善)’을 권장하는 ‘권선의 경’으로, 뇌법 등의 술법을 행하는 ‘술법의 경’ 그리고 화액을 막고 귀신을 녹여서 병을 치료하는 ‘치병의 경’으로까지 존중 받았던 『옥추경』은 ‘좌서’라는 오명(汚名)에다 실학자 이규경에 의해 위서(僞書)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다.

### Ⅲ. 중국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 수용과 비판

중국 도교 유파를 엄밀히 말하면, 단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곧 부록파<sup>34)</sup>와 금단파<sup>35)</sup>이다. 또 금단파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앞 단계는 주로 외단술이고, 뒤 단계는 주로 내단술이다. 모두 단약을 제조하여 장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sup>36)</sup>

다양한 도교의 유파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모두 이들 2개 유파의 범주나 혹은 그들의 융합된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sup>37)</sup> 원

34) 符箓派道教：符箓派也叫符水道教，来源于古代的巫祝方术，它是一种利用符、图等请神驱鬼、趋吉避凶的活动。(부록파도교：부록파는 또한 부수도교라 불린다. 고대의 무주방술에 기원한다. 그것은 일종의 부적과 그림 등을 이용하여 신에게 귀신을 쫓게 하고,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하는 활동이다.) 張夢道, 앞의 책, p.63.

35) 金丹派道教：金丹派也叫丹鼎派或炼养派，是借助服食外丹或修炼内丹等途径，达到成仙得道的目的。(금단파도교：금단파도 단정파 혹은 연양파로 불린다. 외단을 복식하거나 혹은 내단 수련의 절차적 도움을 받아, 신선이 되어 도를 얻고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같은 책, p.63.

36) 金丹派分两个阶段，前一个阶段主要是外丹术，后一个阶段主要是内丹术，都是以炼制丹药而追求长生为目的。같은 책, p.69.

37) 道教两大派别：道教派别严格来说，只能分为两大类，即符箓派道教和金丹派道教。道教中的许多道派从本质上说，都逃不出这两个派别的范畴或是它们的融合，같은 책, p.63.

나라(元, 1271-1368) 때, 부록파의 대표 종단은 정일교(正一敎)이고, 금단파에서도 내단파의 대표 종단은 전진교(全眞敎)이다. 전진교는 5대 장교(掌敎) 구처기(丘處機, 1148-1227) 때부터 태조 칭기스칸(1206-1227)의 도움으로 북경에 자리를 잡은 후, 북방 도교를 장악하였다.<sup>38)</sup> 그리고 7대 장교 이지상(1193-1256) 때 절정기를 맞이하여 그 수가 수천만이 넘었다는 과장된 기록이 있다.<sup>39)</sup>

원조(元朝)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남방의 오래된 도교 정일교가 갑자기 부상하여 신속하게 팽창되면서 전진교의 기세를 초월하게 되었다.<sup>40)</sup> 이 시기는 원 세조 지원13년(1276)부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후부터는 정일교가 그 세력을 남방에서부터 북방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중국 전 지역의 각종 도교 종단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일교의 39대 천사 장사성에 의해 『옥추경』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원나라 때 도교사(道敎史)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진교의 7대 장교 이지상 때 ‘도교인들이 천만이 좀 넘는다’는 표현에서 도교인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인들은 도교인들

38) “칭기스칸은 조서를 내려 구신선이 수행하는 사원에서 경을 읽고 하늘에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 부역과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이전에 성지문자(聖旨文字)를 주어 너를 오라고 하였는데, 너로 하여금 천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출가선인들을 모두 관장하게 하고자 함이다.”라고 말하였다.” 葛兆光, 『道敎와 中國文化』, 沈揆昊 옮김, (서울: 동문선, 1993), p.333.

39) “교단 세력은 막북(漠北, 몽고)에서 강남까지의 지역에 미치고 있었는데 불교나 다른 교단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때문에 도교 성립 이후 이렇게 극성했던 때가 없었다는 식의 표현, 즉 전진 교도가 천하에 가득하고 그 수는 수천만 명에 달했다는 등의 과장적인 표현조차 보이고 있다.” 구보노리따다 지음, 『도교사』, 최준식 옮김 (철곡: 분도출판사, 1990), p.316.

40) “정일교가 흥성했다는 것은 원 세조 훌필렬(忽必烈)이 지원13년(1276)에 36대 천사 장종연(張宗演)을 불러 만났다는 데서 여실히 증명된다. 그러나 그가 왜 장종연을 만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17년 전으로 소급해서 살펴봐야만 한다. 『원사·석노전』에 보면, 원 세조가 장종연을 만나 이야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17년 전 나는 군대를 이끌고 호북 일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 때 왕일청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부친을 방문하게 하였다. 그러자 너의 부친이 왕일청에게 말하길 20년 후에 천하가 통일된다고 하면서 나에게 가서 아뢰라고 하였다. 오늘날 과연 이 말이 사실임이 판명되었다. --- 송염(宋濂)은 『장천사세가서』에서 원 세조가 밀사를 파견하여 용호산을 방문하게 하였는데, 장천사(35대 천사 장가대(張可大))가 “영험(靈驗)을 주었다.”고 한다.” 葛兆光, 앞의 책, pp.334+335.

보다 숫자로는 10배가 더 많았다는 기록도 있다.<sup>41)</sup> 이렇게 전진교 도교인들과 타종단의 도교인들이 많이 증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폐단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전진교가 교화에 사용한 ‘화호경(化胡經)’이 불교도를 심하게 자극<sup>42)</sup>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58년 원나라 대도(북경)에서 소림사 주지였던 복유(福裕)를 수장으로 하는 불교도들과 전진교 8대 장교 장지경(張志敬)을 수장으로 하는 도교도들이 모여 쿠빌라이 앞에서 제1차 도·불 논쟁을 벌였다. 전진교가 주축이 되어 논쟁을 하였지만 참패를 맛보게 된다.<sup>43)</sup> 1차 도·불 논쟁 참패 후 전진교와 정일교간에 도세(道勢)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바로 1276년 이후 세조 쿠빌라이(재위:1260-1294)에 의해 정일교가 인정되면서 전진교의 도세를 추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정일교의 도세는 커지고, 전진교의 도세는 줄어드는 시대가 이른 것이다.

이 때 또다시 1281년 전진교도들이 불교를 모함했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제2차 도·불 논쟁이 있었다.<sup>44)</sup> 논자가 추측하기에는 정일교가 주축이 되어서 남방 도교 대표와 북방 도교 대표가 모두 모여 흙그라운드에서 23년 전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황제의 옹호를 받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참패를 하였고 애꿎은 도경만 불타게 된 것이다. 두 번의 도·불 논쟁은 도교의 쇠퇴<sup>45)</sup>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 도교

41) 『원사·석노전』에서, 그들은(도교도들은) “불교의 심분지 일도 안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같은 책, p.345.

42) “전진교측에서 『화호경』과 노자가 대대로 환생(노자가 석가모니로 환생)하여 세인들을 교화하는 모습을 81장의 그림으로 그려 설명을 붙이고 그것에 『도덕경』을 첨가한 ‘노자팔십일화도(老子八十一畫圖)’를 만들었다.” 구보 노리마다, 앞의 책, p.316.

43) “도사들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이전에 도관으로 개수 하였던 절 가운데 일부분이 다시 원래 형태로 바뀌게 되었으며, 일부 사이비 도경으로 판가름난 도교의 경서들이 불에 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葛兆光, 앞의 책, p.345.

44) “정일파 천사 장종연과 전진교의 수령 기지성, 그리고 대도교의 수령 이덕화가 원나라 대도(북경) 장춘궁(長春宮; 백운관)에서 다시금 불교들과 일대 쟁론을 벌이게 되었다.” 같은 책, p.345.

45) “원대 말기에는 삼교원융(三教圓融)·양성전명·청심과육을 교의로 한 전진교가 쇠멸되었고, 충효를 구호로 삼았던 정명교 역시 쇠미해져 갔다. 그리고 단지

인들에게 엄청난 자성(自省)<sup>46)</sup>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1281년 2차 도·불 논쟁 이후, 도교인들은 사상적 빈약성을 반성하며, 불교보다 더 깊고 심오한 진리체계와 기존의 ‘옥황상제’ 신앙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을 갈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사성이 1317년 정일교 39대 천사가 되어 등장했는데, 그 해 원나라 ‘인종’으로부터 “태상노군의 교법을 관장하라”는 조서(詔書)<sup>47)</sup>를 받았으며, 또 원대의 황제가 거행하는 의식 가운데 가장 성대한 ‘황록보도대초의식(黃籙普度大醮儀式)’을 전진교의 장문인(掌門人)과 함께 주관하였다.<sup>48)</sup> 이는 2차 도·불 논쟁 이후 정일교의 장사성이 강남 도교를 통합한 만법교단의 만법교주로서 강남 뿐 아니라, 중국 전 지역의 도교 교단까지 그 영향력을 매우 깊고 넓게 행사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시 도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장사성이 1333년에 ‘옥청’의 ‘원시천존’과 같은 위격이면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천존’의 존재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집주』를 통해 세상에 표명하고, 그 말씀을 전한 것은 아마도 도교인들의 사상적

부적이나 주술을 이용하여 귀신을 부리거나 재앙을 물리치고자 했던 정일파만이 남아 힘들게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에 들어서게 되었다.” 같은 책, p.347.

46) “선종은 기존의 자기 사상에 노장사상의 정화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원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교를 사면초가로 만들어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도교는 오히려 선종 쪽에서 구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윤리를 말하고 선악을 말하며 중군·효부를 이야기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 분야에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학(理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도교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같은 책, p.346.

47) “원 세조(재위, 1260-1294)가 한번 만나고 한 번 임명하게 되자 용호산은 금세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적어도 강남 지역에 관한 한 그들은 제일인자로 행세할 수 있었다. 『원전장(元典章)』 권33에 보면, 원 인종(1311-1320)이 황경원년(1312), 연우 4년(1317) 두 차례에 걸쳐 조서를 내리고 강남에서는 “장천사가 태상노군의 교법을 관장하라”고 명하고, 도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장천사의 의견에 따르고 “장천사의 말이 없으면 선생(先生)을 할 수 없다”고 명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원의 대도에서는 그것이 전진교와 세력을 다투게 되었다. 특히 장종연(36대 천사, ?-1292)의 제자 장유손은 완택을 숭상의 자리에 부상시켰고, 황제를 위해 치병의 기도를 하고 해몽을 하였는데, 마침 효력을 보게 되어 정일교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같은 책, p.336.

48) “태정(泰定:1324-1328) 연간에 원대의 황제가 거행하는 의식 가운데 가장 성대한 것이 황록보도대초의식(黃籙普度大醮儀式)이었는데, 이는 정일교의 천사와 전진교의 장문인(掌門人)이 함께 ‘남북의 도사 1천 명을 이끌고 장춘궁에서 대과법(大科法)을 7일간 거행한다.” 같은 책, p.338.

빈약성을 반성하며, 불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상이 도교에도 있으며 그 것이 바로 기존의 도교를 대표하는 ‘옥황상제’와는 다른 새로운 ‘천존’과 그 교법임을 알리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말씀이 기록된 『옥추경』은 원전(原典)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과 해경백진인 주(海瓊白真人 註), 조천사장진군 해의(祖天師張眞君 解義), 오뢰사자장천군 석(五雷使者張天君 釋), 순양부우제군 찬(純陽孚佑帝君 讚)이 더해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집주(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註)』본으로 분류된다. 이 두 경전은 『정통도장(正統道藏)』<sup>49)</sup>의 통진부(洞眞部) 본문류(本文類)와 통진부(洞眞部) 옥결류(玉訣類)에 각각 있다.

『옥추경』 원전이 세상에 출현한 시기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구중회는 1311년부터 1333년 사이에 강수(降授)된 것으로 추론한다.<sup>50)</sup> 논자도 구중회의 연구에 동의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통 내에서 또 다른 종교현상이 세상에 태동될 때는 공통적으로 그 전통의 공유자들이 염원하는 시대적 조류를 맞이하여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옥추경집주』본의 출현 시기는 그 집주본 편자인 정일교(正一敎) 39대 천사 장사성(張嗣成, ?-1344)<sup>51)</sup>이 지은 발문(跋文)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49) “『정통도장』은 ‘도교 일체 경서의 총집’으로서 명나라 3대 황제 성조(成祖, 재위 1402-1424)가 즉위 초기에 정일교 43대 천사 장우초가 칙령을 받아 편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영락8(1409)년에 장우초가 죽으므로, 44대 천사 장우칭에게 조령을 내려 이 사업을 지속하도록 했다. 이 작업의 결산은 6대 황제 영종(英宗, 재위 1435-1449) 정통9(正統, 1443)년에 간행을 시작하여 정통 10(1444)년에 완간된 것으로 되어있다.” 구중회, 앞의 책, P.26.

50) 같은 책, p.53.

51) “송염(宋濂)의 『장천사제가서(張天師世家書)』에 의하면, 장사성은 제 39대 천사로 자는 차망(次望)이고, 호는 태현자(太玄子)이다. 제38대 장여재(張與材)의 아들로 연우(延祐) 4년(1317)에 사교(嗣敎)로 계승되었다. ‘태현보화체인응도대진인(太玄輔化體仁應道大眞人)’의 칭호를 받고 삼산부록(三山符籙)을 주관하고 영도하며 강남도교사(江南道敎事)를 장악했다. 금도첩을 얻어 범록을 행했다. 연우 7년(1320)과 태정(泰定) 4년(1327)에는 각각 행성(浙江行省)에서 대초(大醮)를 세웠다. 또 태정 2년(1325) 2월 1일에는 황록대초를 설치하고 장춘궁의 손이도, 오전절을 만났다. 다시 ‘익원승덕정일교주 지집현원도교사’가 보태졌다. 지정(至正) 4년(1344)에 오악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청성(淸省) 금강소경 내에서 죽었다. 『도덕진경장구훈송』 2권을 찬했고, 아울러 용 그림을 잘 그렸고 초서에

원나라 말엽 영종(寧宗, 재위 1332-1333) 지순4(1333)년이라고 구중회는 밝히고 있다.

‘장사성’의 발문은 우리에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출현에 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서 구중회의 발문 해석<sup>52)</sup>과 이슬의 발문 해석<sup>53)</sup>에서 이견(異見)이 존재한다. 구중회는 ‘현양자’를 ‘태현자(장사성)’와 동일한 인물로 가정하여 해석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슬은 ‘현양자’가 ‘태현자’가 아님을 근거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이슬’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필자의 해석으로 두 인물이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태현자’의 ‘지극한 바람’에 대한 해석에서는 구중회와 이슬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두 사람 다 ‘형상과 문자에 매이지 말고 도를 얻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뒤 부분 해석은 의미 전달이 어렵고 ‘발문’의 취지도 드러나지 않

---

능했다. 명나라 홍무(홍무) 3년(1368) ‘정일교주 태현홍화명성승도대진인’으로 추증되었다.” 같은 책, pp.43-44.

52) “현양자(장사성의 호)가 뇌정옥경을 만난 바 있다. 본말은 이와 같다. 이는 반드시 스스로 찾아올 것이었다. 스스로 비밀스런 처방이 아니라 장차 기록으로 실려서 이를 널리 전해진 것이다. 이런 까닭은 사람들과 더불어 착한 마음을 가지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송의 일은 그것이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찾아낼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지극한 도는 말이 없는 것이고, 지극한 말은 신의 흔적이 없는 것이다. 이를 밝혀 사람과 스승이 알도록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언어와 문자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공덕에 이르러 추측해 본다면 언어와 문자 바깥에서도 얻을 수 있다.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굳어진 형상과 문자에 붙잡힘이 없겠는가? 이것이 즉 나의 지극한 바람이다. 스승들은 이를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같은 책, p.35.

53) “현양자가 만난 바 뇌정옥경을 본말이 이와 같으니 그 내력의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뇌정옥경을 비밀리 보관하기보다는 바야흐로 인쇄를 해서 그것을 널리 반포하여 남과 더불어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뜻이 심히 추천할 만하다. 내가 비록 그 사람됨(인품)을 알지는 못하나 진실로 이미 그 마음됨을 알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극한 도는 말이 없고, 지극한 말은 자취가 없으니 그것을 신령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밝혀 그 사람을 잘 보존하는 것이 현양자가 이미 언어와 문자 가운데서 터득한 것이니라. 그 공로를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에 다시 언어와 문자 외에도 터득함이 있으나, 어찌 남들로 하여금 그대를 이상집문(글자와 문자만 하는) 하는 자라는 말함이 없겠는가? 이것이 즉 지극히 내가 바라는 바다.(남들이 글과 문자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본인이 바라는 것이다.) 그대는 거기에 힘쓸지이다.” 이슬, 『도교 경전 『옥추경』의 민간전승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5-2 (2009), p.135.

아서 필자는 반대로 해석하고자 한다.

현양자가 우연히 뇌정옥경을 만난 바 있는데, 본말은 이와 같으며, 필히 스스로 찾아온 이유가 이와 같이 있다. 뇌정옥경은 스스로 숨지 않음으로써, 장차 기록되어 널리 전해지고자 하는데, 그 까닭은 사람들과 더불어 선을 돕고자 하는 뜻을 매우 두텁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장사성) 비록 그것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분명히 이미 벌써 그것이(뇌정옥경) 사람의 마음을 돕고 있는 것을 알기는 하였지만, 뇌정옥경은 보통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음도 알았다. 비록 지극한 도는 말이 없고, 지극한 말은 그 자취가 없지만, 도의 신령스러움이 밝음으로 드러난 것이 그 사람(현양자로 추측됨)에게 어찌 존재하지 않겠는가.(현양자가 도를 얻음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됨) 자(현양자)에게 이미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 그 공을 미루어 짐작하면 현양자가 언어와 문자 외에서도 또 얻은 것이 있다.(내단 공부로 추측됨) 하지만 이 공부가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부르는 자(스승)으로 하여금 상(각 부록과 중단이 모시는 신위)에 매이게 하고 문자(각 부록과가 사용하는 경)에 집착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옥추경』을 전하기 위해서 명분을 세우는 말로 이해됨) 이것이 곧 나(장사성)의 지극한 바람이다. 스승(각 부록과와 금단과의 대표)은 이에 힘쓸지어다. 지순(1333년) 상원일 상속자 39대 천사 태현자 지음. (玄陽子所遇雷霆玉經, 本末如是, 如是其必有自來矣. 不以自秘, 方將粹而廣之, 其所以與人爲善之志篤. 予雖未識其爲人, 固已先識其爲心, 知其非尋常人也. 雖然, 至道無言, 至言無跡, 神而明之, 存乎其人, 子既有得於言語文字中矣. 推致其功, 乃復有得於言語文字外. 無寧使人謂子爲泥象執文者, 是則予之至望也. 子其勉之. 至順 癸酉上元日, 嗣 三十九代 天師 太玄子書.)<sup>54)</sup>

장사성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널리 알리고 각 도교 종단 대표자들이 『옥추보경집주』를 사용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발문을 썼다고 할 것이다. 위의 번역은 한학의 깊이가 부족한 필자가 장사성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해석해 본 것이다.

54) 張繼禹 主編, 『中華道藏』(北京, 華夏出版社, 2010), p.320.

다른 해석이 가능한 글이므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옥추보 경집주』를 편찬한 취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원말 도교 쇠퇴기에 만법종단 만법교주 장사성이 1333년 『옥추보 경집주』를 세상에 알리고, 11년 후(1344) 죽었다. 그리고 24년 후(1368) 도교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원나라는 망하였다. 새로 등극한 명나라는 초기 도교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불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sup>55)</sup> 이 짧은 시간 동안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신앙을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경전을 접할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 장사성임은 거의 분명하다. 그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위를 각 도교 교단과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한국은 고려 말기로 원나라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원나라와 빈번한 교류가 있던 28대 충혜왕(재위:1330-1344)시대이다. 이때는 백성들이 원나라의 도움으로 왕이 바뀌기를 바라는 시대<sup>56)</sup>이므로 원나라의 비호를 받은 정일교의 경전 『옥추경』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또 장사성은 ‘천존에 대한 제사(음6월24일)’가 모든 도교인들을 통합하기 위한 좋은 명분이라 판단했고 대략 이때(1333)를 기점으로 하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제사를 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사는 1333년부터 1368년까지 원나라 비호가 있던 시대에는 당연한 행사였지만 도교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던 명조를 지나 명나라 10대 황제 효종(孝宗, 재위 1487-1505) 홍치 원년(1488)에 사전(祀典)에서 파면(罷免) 조치<sup>57)</sup>를 당하기까지 12

55) “명 태조朱元璋은 이전에 중 노릇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조를 건립한 후 불교를 예외적으로 총애했다. ... 그는 원나라 사람들을 빌미로 삼아 “의리를 모른다”거나 “하늘에 어찌 스승이 있는가?” 등등의 이유를 들어 도교의 천사(天師)라는 칭호를 폐지시키고 ...” 葛兆光, 앞의 책, pp.347-348.

56)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0), pp.453-457.

57) “중국의 『명효종실록(明孝宗實錄)』과 『명사(明史)』 「禮志」에 실려 있다. 예과 급사(禮科給事)인 장구공에 의하면, 국가의 큰 일은 제사와 군사가 있다. 제사가 바르게 되어야 사람 마음이 바르게 된다. 그런데 조정에서 일상적으로 올리는 제사 이외에 석가모니불, 삼청삼경(三清三境),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등의 제사를 오히려 숭상했다. 이들은 ‘하늘과 땅의 법을 보여주지 못하는 까닭’에

0년 동안 매년 음력 6월 24일에 행하여 졌음은 의외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명초에도 ‘천존’에 대한 신앙이 제도권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나라는 건국한 해(1368)부터 1488년까지 ‘음력 6월 24일’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태어난 날이라 하여 상을 세우고 치제를 지냈다. 『명 실록』을 통해 이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다.<sup>58)</sup>

현대 중국에서 『옥추경』을 위서로 평가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 위상이 과거보다 실추(失墜)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서전(1946-)은 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sup>59)</sup>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위격’을 찾아, 호법신장(護法神將)으로 분류하는 해석을 내놓았다.<sup>60)</sup> 신의 성격을 소의경전인 『옥추경』을 통해 분류하지 않고 소설을 통해 할 정도로 『옥추경』은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음을 방증하며 1333년에 ‘원시천존(元始天尊)’과 거의 같은 위상으로 여겨졌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현대에 와서 ‘호법신장’으

인정할 수가 없는 신들이다. 그 결과 예부상서인 주홍모가 당시 제사 지내는 여러 신들을 1차 고증하고, 장구공이 비정하여 많은 신들이 쫓겨나는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구중회, 앞의 책, pp.20-21.

58) ①“소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도교에서 존중하는 뇌부의 중심신격이다. 도교는 옥소의 일부서로 오리가 총괄하며, 뇌부의 여러 신들은 그 통할을 받는다고 여긴다. 또한 6월 24일은 천존이 태어난 날이다. 그런 까닭으로 조정에서는 이때에 관리를 파견하여 현령궁(顯靈宮)에서 치제를 지내도록 했다. 대저 바람은 뇌우라고 일렀다. 매년 남교(南郊)에서 이미 합례의 제례를 올리고 거듭 제사를 지냈다고 하나, 마땅한 바가 아니었다. 6월 24일은 신이 태어난 날로 천존 이름의 상(像)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제고(祭告:보답하는 제사)를 없애 버렸다.” 구중회, 앞의 책, pp.21-22.

②대만의 ‘中華道教新聞報’에서 만든 ‘2013년도 도교 달력’에서 이 날(6월24일)을 ‘관성제군 성탄’, ‘서진왕야 성탄’, ‘이량신 성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성탄’이라고 적고 있다.

59)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첫째는 허중림(許仲琳)이라는 설로,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 여겨지는 명(明)나라 만력(萬曆) 연간(1573~1620) 각본[일본 내각문고(內閣文庫) 소장]의 ‘중산일수허중림편집(鍾山逸叟許仲琳編輯)’이라는 서명(署名)에 근거하고 있다. 이 설은 근거가 확실하여 루쉰(魯迅)의 『중국소설사략(中國小說史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소설사와 문학사에서 따르고 있으며 현재 학계의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는 육서성(陸西星, 1520~1605?)이라는 설로, 이것은 『곡해총목제요(曲海總目提要)』 권39의 ‘원시도사육장경소작(元時道士陸長庚所作)’이라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경은 육서성의 자(字)로, 원나라 때 사람이 아니라 명나라 때 사람이다. 이 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이버 지식백과] 봉신연의 『封神演義』 (고전해설ZIP, 2009. 5.10, 지만지)

60) 마서전(馬西田), 『중국도교제신(中國道教諸神)』 (대만: 단결출판사, 1996), pp.365-366.

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은 『옥추경』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이 현대 학자들에게 가지는 의의를 잘 보여준다.

『옥추경』에 대한 오인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의 이규경에게 『옥추경』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준 후칠자 왕세정(王世貞:1526-1590)이 나온다.<sup>61)</sup> 왕세정의 『옥추경』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옥추경에 대한 제도권의 비판적 평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왕세정(王世貞, 1526-1590)은 명나라 소주부(蘇州府, 강소성) 태창(太倉) 사람이다. 자는 원미(元美)고, 호는 봉주(鳳州) 또는 엄주산인(弇州山人)이다. 가정칠재자(嘉靖七才子; 後七子)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명나라의 문학자이며, 고문사(古文辭)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후칠자 중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시인이다.

세종 가정26년(1547) 진사(進士)가 되고, 양계성(楊繼盛, 1516-1555)이 엄승<sup>62)</sup>을 탄핵하다가 투옥되자, 탕약(湯藥)을 올렸고, 그의 부인을 대신해 상소문을 초했다. 양계성이 죽자

61) 명나라의 전칠자(前七子:전성기,1488-1520)-당송파(唐宋派:16세기후반)-후칠자(後七子:전성기,1527-1571)-공안파(公安派:16세기후반) 등은 조선 중·후기 문단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따배, 「茅坤과 王世貞의 교류와 그 공통적 지향점」 (<http://chubai.blog.me/20118101610>, 2010), ‘목차5.결론에서부터 아래로 열 번째 줄 참고’

62) 엄승(嚴嵩, 성화17(1481)-융경2(1568)) : 자 유중(惟中), 강서성(江西省) 출생. 1505년 진사로 급제하여 관계에 들어갔으나, 질환으로 향리에서 휴양하기를 1510년, 그사이에 시문으로 명성을 얻었다. 관계에 복귀한 뒤 대례의(大禮儀)에 대해 가정제(嘉靖帝)에게 영합하는 발언을 하여 1536년 예부상서, 1542년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에 올랐다. 1544년 수석대학사가 되었으며, 특히 하언(夏言)이 죽은(1546) 뒤에는 정치를 전담하였다. 항상 황제의 비위를 맞추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으며, 아들 엄세번(嚴世蕃)과 함께 악행으로 공사간을 횡행했다. 특히 모략으로 하언(夏言)과 증선(曾銑), 장경(張經) 등을 살해한 뒤 자신을 탄핵한 양계성(楊繼盛) 등을 죽였다. 심복인 조문화(趙文華)와 언무경(鄆懋卿) 등을 요직에 앉히고는 20여 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다. 뇌물을 거둬들이는 아들 엄세번의 불법행위를 방치했다. 만년에는 임금의 신뢰를 잃어 41년(1562) 서계(徐階)의 측근 어사(御史) 추응룡(鄒應龍)이 엄세번의 불법을 항소하자 파직되었다. 나중에 어사 임윤(林潤)이 그의 비리를 탄핵해 평민으로 떨어지고 가산도 몰수당해 가난하게 죽었다. 저서에 『검산당집(鈐山堂集)』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엄승 [嚴嵩] (중국역대인명사전, 2010, 이회문화사) [네이버 지식백과] 엄승 [嚴嵩] (두산백과)

(1555) 염을 맡았는데, 엄승이 크게 앙심을 품었다. 마침 달단(韃靼)이 국경을 넘자(1559) 왕세정의 아버지 계요총독(薊遼總督) 왕여(王忬, 1507-1560)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여 투옥(1559)되었다. 그와 동생 왕세무(王世懋)가 엄승에게 찾아가 대신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왕여는 끝내 서시(西市)에서 참수당했고(1560), 형제는 울면서 관을 모시고 돌아갔다. 그는 벼슬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무고함을 8년간이나 노력한 끝에 세종이 죽은(1566) 후 목종 융경(隆慶, 1566-1572) 초에 명예를 회복시켰다. 융경3년(1569) 4월에 절강참정(浙江參政)에 부임한 후, 얼마 못가서 다시 산서안찰사(山西按察使)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고, 이듬해(1570) 1월 절강성을 떠나 남경(南京)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올랐는데, 병으로 귀향했다. 이반룡이 죽은(1570) 뒤 20여년(1570-1590) 동안 문단을 장악했다.

후칠자의 맹주격인 이반룡(李攀龍)과 함께 이왕(李王)이라 불려 명대 후기 고문사(古文辭)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격조를 소중히 여기는 의고주의(擬古主義)를 주장하였으나, 이반룡이 진한(秦漢)의 글과 성당(盛唐) 이전의 시(詩)만을 그대로 모방한 데 비하여 왕세정은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만년에는 당나라의 백거이(白居易)·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 송(宋)나라의 소동파(蘇東坡, 1036-1101) 등의 작품에도 심취하였다. 그는 『엄산당별집(嚴山堂別集)』 등 많은 역사 관계 논문을 남겼다. 중국 4대기서(四大奇書)의 하나로 알려진 『금병매(金瓶梅)』가 그의 작품이라는 설도 있다.<sup>63)</sup>

이상의 자료에서 보면 왕세정은 ‘학식에 있어서 1인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대 매우 중요한 제도권 학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옥추경에 대한 그의 비판은 학문적 견해가 아니라 학문적인 시각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왕세정이 젊은 시절 "문장은 반드시 서한(西漢, B.C.206-9) 시대 것과 같아야 하고, 시는 반드시 성당(盛唐, 618-907) 시대 것과 같아야 하며, 대력(大曆(唐年號), 766-779) 이후는 보지 말아야 한다(文必西漢, 詩必盛唐, 大曆以後書勿讀)"<sup>64)</sup>고 주장한 것과 노년에 ‘소동파(蘇東坡, 1036-11

63) [네이버 지식백과] 왕세정 [王世貞] (중국역대인명사전, 2010, 이회문화사)  
[네이버 지식백과] 왕세정 [王世貞] (두산백과)

64) [네이버 지식백과] 왕세정 [王世貞]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2010, 다락원)

01) 등의 작품에도 심취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적어도 1101년 이전의 문장과 시는 연구의 가치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시·문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즉 송(宋, 960-1279), 금(金, 1115-1234), 원(元, 1271-1368) 시대에 강수(降授)된 도경(道經)에 대해서는 연구의 의미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유학자이며 고문사(古文辭)파의 지도자인 왕세정이 명 세종 때 도교와 연관된 엄청난 정치적 역경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마 그랬다면 왕세정이 1445년에 만들어진 『정통도장』에 있는 『옥추경』뿐만 아니라, 『정통도장』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면 왕세정은 45년간 도교에 미친 황제에 대해 환멸을 느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서 황제가 애용했던 『도경』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한 연구는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왕세정은 용경(1566-1572)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케 하고 고향에 돌아 온 후(1570) 많은 역사 관련 논문을 적었는데, 이때쯤 『옥추경』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가 2012년에 중국의 남종 도교 도사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통도장』에 대한 관심을 표하니 연구가 아닌 한 번 보는데 만 3년이 걸린다 하였다. 도교의 도사가 보는데 만 3년이 걸리는 『정통도장』을 관심도 없었던 왕세정이 오랜 세월을 투자하여 학문적인 천착을 하였으리라 가정하기는 어렵다. 『정통도장』에 관련된 깊은 연구물도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그의 학문적인 성향과 그가 받은 정치적 탄압을 볼 때, 『옥추경』에 대한 그의 견해는 충분히 아래와 같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구중희는 ‘왕세정이 1526년에 태어나 1590년에 죽은 것을 감안하면, 100여 년 전 국가 문서를 보지 않고 두광정 위찬 운운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시하여 왕세정의 견해가 매우 비합리적임을 지적하고 있다.<sup>65)</sup>

포박(抱朴子)과 성식(段成式)<sup>66)</sup> 도경목록(道經目錄)에 옥주경(玉樞經)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두광정(杜光庭)<sup>67)</sup>의 무리가 잘못 썼기 때문에 실리지 않은 것은 아닐까.<sup>68)</sup>

지금부터 왕세정이 도교와 연관된 정치적 역경을 겪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나라는 건국 초부터 불교를 숭상하였으며 ‘불사약’에 대해서는 터부시했다.<sup>69)</sup> 그러다가 선종(선덕)때부터 다시 도교가 부활하기 시작하여,<sup>70)</sup> 세종(가정)때에 황금기를 누리다가,<sup>71)</sup> 목종(융경)때에는 시련기<sup>72)</sup>이며 쇠퇴기를 맞이하

65) 구중회, 앞의 책, pp.27-28.

66) 단성식(段成式, ?-863) : 당(唐)나라 때의 학자. 박학(博學)이라는 영예를 안으면서 연구에 정진하여, 비각(秘閣)의 책은 모두 읽었다고 전한다. 상서랑(尙書郎)·강주자사(江州刺史)·태상소향(太常少卿)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에 『유양잡조(酉陽雜俎)』(20권), 『속집(續集)』(10권)이 있다. 『유양잡조』는 당대를 주로 한 괴이한 사건, 언어와 그리고 풍속 따위를 기술한 책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단성식 [段成式] (두산백과)

67) 두광정(杜光庭:850-933) : 중국 당(唐) 말 오대(五代)의 도사(道士). 팔장(括蒼) 사람. 자는 빈성(賓聖)이고, 자호는 동영자(東瀛子)다. 경전과 역사를 읽기를 좋아했고, 사장한묵(詞章翰墨)에 능했다. 의종(懿宗:859-873)이 만언과(萬言科)를 설치했을 때 응시했지만 떨어진 뒤 천태산(天台山)에 들어가 도교를 공부하여 도사(道士)가 되었다. 회종(僖宗:873-888) 때는 도교의 영수로 존경을 받았다. 회종이 촉(蜀)으로 달아났을 때 비로소 인덕전(麟德殿) 문장응제(文章應制)에 응당되어 호부시랑(戶部侍郎)까지 올랐는데, 나중에 소종(昭宗)이 즉위한 뒤로 청성산(青城山) 백운계곡(白雲溪谷)에 은거하며 저술에 전념했다. 왕건(王建, 847-918)이 촉 땅을 근거로 옹거했을 때 광성(廣成)이란 호를 내렸다. 저서에 『간서(諫書)』100권과 『녹이기(錄異記)』10권, 『태상동연신주경(太上洞淵神呪經)』, 『도문과범대전집(道門科範大全集)』, 『태상로군설상청쟁경주(太上老君說常清淨經注)』, 『광성집(廣成集)』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광정 [杜光庭] (중국역대인명사전, 2010.1.20., 이희문화사)

68) 구중회, 앞의 책, p.25.

69) 영락15(1417)년에 어떤 이가 단약과 방술에 관한 책을 진상하였을 때, 그는 크게 노하여 “이 사악한 인간아 진황제나 한무제가 일생 동안 방사들에게 속임을 당해 장생불사의 영약을 구하려 애썼거늘 이제 다시 짐을 속이려들다니, 짐은 그 따위는 아무 필요 없도다. 금단일량은 네가 직접 먹고 방사는 없애 버릴 것이며, 다시는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葛兆光, 앞의 책, p.348.

70) 선덕황제(宣德, 1425-1435) 때부터는 이러한 환술을 가지고 남을 속이거나 귀신 이야기를 하는 도사들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장생불사와 방중술, 그리고 귀(鬼)를 내쫓고 사악한 요괴를 몰아낸다는 등의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 통치자의 신임을 얻기에 이르렀다. 같은 책, p.348.

였다.<sup>73)</sup> 이 중에서 세종 45년(1521-1566)은 사대부의 수난<sup>74)</sup>과 시련기<sup>75)</sup>였으며 도교에 대해 가장 큰 환멸을 느끼게 해주는 시기가

- 71) 가정 연간에 이르자, 도교는 다시 한 번 대단한 권세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명 세종(가정)은 특히 귀신을 맹목적으로 믿었으며, 장생불사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도교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으며, 매일 매일을 정사는 돌보지 않고 제초의식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 ‘고인(高人)’이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느라 하루해틀 다 보냈다. 당시 세종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 대개가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황당한 도사나 도교도 들이었다. 같은 책, pp.348-349.
- 72) 명 세종이 45년간이나 천하를 호령하다 마침내 세상을 하직하게 되자, 도교의 화려한 영화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명 목종(積宗, 1566-1572)이 즉위하자마자 왕금(王金)·도방(陶倣)·신세은(申世恩)·유문빈(劉文彬)·고수중(高守中)·도세은(陶世恩) 도사들은 모조리 투옥되어 결국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이후 도교는 다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같은 책, p.352.
- 73) 도교의 경우에는 비록 한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널리 성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오랫동안 자신들을 지탱할 수는 없었다. 특히 당시 도교의 폐해로 말미암아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유학의 지위도 따라서 위태롭게 되었으며 사대부들의 정상적인 생활 역시 어지럽게 됨에 따라 도교는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같은 책, p.352.
- 74) 가정 10년(1531) 이후에 세종은 도교에 대한 증독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말할 만큼 거의 몰입지경에 들어섰다. 가정 11년(1532) 편수관編修官 양명楊名이 기도祀續를 그만두시라고 권하였다가 크게 노한 세종에 의해 하옥되고 귀양을 가기에 이르렀고, 가정(1538)17년에는 급사중(給事中) 황신(黃臣)이 방사를 기용하시지 말라고 권고했다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가정 18년에는 태복경(太僕卿) 양최(楊最)가 도사의 방술을 사용하시지 말라고 권고하고 단약은 원기를 상하게 하니 “삼가 가만히 도를 생각하고 성색을 멀리 하시라”고 간언하였다는 이유로 진무사(鎭撫司)에 체포되어 결국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가정 20년에는 여사 양각(楊爵)이 세종이 총애하는 도사가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가 역시 진무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으며, 가정 24년에는 이부상서 옹협(熊俠)이 부난술은 사람들을 속이는 방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가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또한 부마도위(駙馬都尉) 오경화(吳景和)는 스스로 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玄文』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고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고 하였다가 그 말이 세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결국 ‘상서롭지 못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공부상서 조문화(趙文華)는 병을 핑계 삼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가, 역시 ‘수현(修玄)’하면서 ‘공언하는 말을 싫어하는’ 세종의 미움을 받아 관직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다. 특히 가정44년(1565)에는 해서(海瑞)가 상소를 올려 도사들을 비판하여, ‘그들이 황제를 20여 년간이나 속이고 조정을 해롭게 하였다고 말하였다’가 명 세종의 진노를 받아 그 즉시 진무사에 투옥되었다. 만약에 세종이 얼마 후에 죽지 않았다면 결국 그 역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모사들이나 도교의 방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밥먹듯 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며, 황제의 비호하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더욱 드날릴 수 있었다. 같은 책, p.350.
- 75) 당시 저명하였던 도사 도중문(陶仲文)은 ‘신소보국선교고사(神霄保國宣敎高士)’를 제수 받았으며 ‘신소보국홍렬선교진법통진충효병일진인(神霄保國弘烈宣敎振法通眞忠孝秉一眞人)’을 제수 받았으며, 아울러 소보(少保)·소부(少傅)·소사(少師)를 겸하고 예부상서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신하로서 최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래서 당시 사대부들조차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지 한사람이 삼공

기도 하다.<sup>76)</sup>

왕세정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시대는 세종(嘉靖, 1521-1566)때인데 세종황제가 장생불사의 약(藥)<sup>77)</sup>인 외단을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간신(특히 엄숭)들<sup>78)</sup>에게 정사를 맡김으로 인하여 명대의 몰락을 재촉했던 시기이다.<sup>79)</sup> 왕세정은 세종 때 나라의 전권을 행사하는 ‘엄숭’으로부터 친구 양계성을 잃고(1555), 아버지 왕여를 잃었다(1560). 엄숭은 친구 하언(夏言)의 은혜로 관직에 진출하였는데 세종에게 아첨하여 오히려 하언을 죽인(1546) 후부터 정치적 전권을 행사하여 1562년 실각할 때까지 아들 세번과 함께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치적 역경을 겪은 왕세정이 그 당시 장생불사에 빠진 세종을 통해서 도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미루어 짐작된다. 아마도 『도경』 자체를 멀리했을 것 같은데, 왕세정이 『옥추경

다음가는 벼슬 세 가지를 겸임하였으니, 아마도 이러한 일은 명대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같은 책, p.351.

76) 도교는 원대 이래 나날이 조악하고 천박한 방술무의로 변해 갔으며, 가정 연간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져 당시 도사들은 이러한 미신적 요소를 극단적인 곳까지 몰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대부들의 눈에 도교라는 것은 ‘최하층’의 잡동사니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책, p.351.

77) 궁정 안에서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제조의식을 위한 준비와 그 행사가 연일 벌어졌고, 납이나 수은을 달구느라 온갖 연기가 하늘을 덮었으며, 궁정 밖에서는 홍옥(紅玉)이나 황옥(黃玉)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방으로 이인(異人)이나 고인(高人)들을 찾아다니고, 부록과 비방을 구하느라 부산하였으며, 심지어는 여자들의 월경(天癸:월경의 다른 말) 때 나온 피를 가지고 장생약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40여 년간은 이렇듯 검은 연기 자욱하여 사방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헤매게 되니 사람들은 고사하고 소나 말조차 평안할 날이 없었다. 같은 책, p.349.

78) 대학사였던 엄숭은 이미 혼미한 상태에 있던 세종의 심리를 간파하고, 『기학문검(新鶴文檢)』과 『법비(法秘)』를 날조하여 세종에게 헌납하였고, 다시 도쳐로 고인·술사를 찾아다녔다. 이처럼 도교도들과 일부 관료들이 하나로 의기투합되었으며, 이미 혼미한 상태에 있던 임금은 더욱 그들의 허황된 짓거리를 조장하였다. 같은 책, p.349.

79) 왕세정의 편지에 나오는 ‘저주기마(著朱騎馬)’란 표현 역시 현실비판적인 신라부(新樂府)를 창작했던 중당(中唐)때의 시인 백居易(白居易, 772-846)의 시에 나오는 구절로, 이 시가 한 시골 아낙네의 신산스런 모습과 ‘붉은 치마를 입고 말에 올라타’ 유흥을 즐기는 기생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포착한 시임을 상기한다. 황제 권력에 아무하며 그 권세를 업고 부귀영화를 즐기고 있었던 엄숭(嚴嵩)과 서계(徐階) 등을 한낱 몸 파는 기생에 비유한 통렬한 비판과 풍자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배, 「茅坤과 王世貞의 교유와 그 공동적 지향점(申最의 『皇明二大家文抄』를 통해 본 茅坤과 王世貞)」, 『역사적 典範의 흡수와 자기만의 길』에서부터 위로 32번째 줄-37번째 줄 참고

』을 ‘두광정’의 위찬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의 말은 『옥추경』이 세종 황제로부터 매우 존중받는 경전이란 사실을 반증(反證)해 주기도 한다. 또 1888년(고종25년)에 간행된 조선의 『옥추경』 계룡산본(鷄龍山本)에 명나라 세종이 황제로서 작성한 357자의 서문<sup>80)</sup>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명 세종도 『옥추경』을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이래로 중국에서는 도교의 ‘불사약’에 광신한 황제가 많았다. 진시황(始皇帝, B.C.259-B.C.210), 한무제(漢武帝, B.C.156-B.C.87), 당현종(唐玄宗, 685-762), 송진종(宋眞宗, 968-1022), 송휘종(宋徽宗, 1082-1135), 명세종(明世宗, 1507-1566)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명 세종이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명 세종 이후 도교는 사대부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였고 그 후 도사들은 신분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전락하고 만다.<sup>81)</sup> 이러한 상황은 명대 이후 『옥추경』에 대한 제도권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옥추경』은 중국에서 나라의 자연재해를 풀어주는 해결사(解決士)였고, 신선이 되는 지름길을 제시해주는 지침서(指針書)였고, 도교가 모든 법을 모아서 만든 뇌법(雷法)을 쓸 수 있는 법술(法術)을 가지고 있는 술법서(術法書)였으며, 또한 온갖 화액과 재앙을 일으키는 귀신을 녹이는 영험(靈驗)을 가진 경으로 한 때 제도권에서도 인정받았지만 도교를 숭앙하던 황제가 정치적인 전횡을 하고 사망하는 경우 정치적 희생양으로 그 위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는 현실화 되었다고 보여 진다.

80) 명세종숙황제어제서(明世宗肅皇帝御製序; 명세종이 황제에 의해서 작성한 서문을 삼가 올립니다): 이 글은 세종 황제가 죽은 후(1566) 322년이 지나서 등장한 글이다. 구중회는 중국에서 간행된 『옥추경』에서 이 글을 확인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조심스럽게 도교의 중흥기이기 때문에 서설을 적었다는 가정도 하였다. 진위 여부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81) 히라카와 스케히로 지음,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노영희 옮김 (서울: 동서출판 동아시아, 2002), pp.242-244. ‘승복에서 儒服으로’

## IV. 달는 글

이상에서 『옥추경』이 한·중에서 정치적 수난을 통하여 제도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위상 역시 실추되는 역사적 추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까지 대순진리회 전통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와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비교 연구와 도교 신학적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교학자들과 외부 종교학자 양자 모두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아마도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본론에서 살펴본 역사상 존재했던 옥추경에 대한 동아시아 제도권의 부정적 인식과 여기에서 비롯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위상 격하와 관련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순진리회 교학자들의 대순신학 전개에 있어 위상이 격하된 옥추경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최고신으로서의 증산 곧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의 연관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종교학자들이 접할 수 있는 신학적 연구 자료의 절대적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관련된 신앙이 동아시아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초기의 위상 및 비판적 인식의 과정을 본다면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관련된 종교현상 및 신학체계를 대순진리회 전통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신앙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순신학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명 시대까지 중국 도교 문화에서 ‘음력 6월 24일’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태어난 날이라 인정하고 있었음을 대순진리회의 창설자인 박우당 도전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날과 일치하는 증산 성사의 화천일을 이에 관련지우고 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상제님께서서는 기유년(己酉年) 6월 24일에 화천하셨다. 6수(數)는 6·6해서 36으로, 36은 360을 뜻하고 360은 도(道)를 말한다. 360에는 24절후가 들어있으니 그러므로 24일에 화천하신 것이다. 이는 『옥추보경』에도 있다.<sup>82)</sup>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회의 전통이 『옥추경』과 관련된 종교현상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서의 증산의 신성성에 대한 중요한 담론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도주 조정산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선언이 옥추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해설과 유사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하늘은 삼십 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 보화천존 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sup>83)</sup>

九天者，乃統三十六天之總司也。(구천이란 삼십육천을 총괄함을 말한다)<sup>84)</sup>

이 외에도 대순진리회 전통의 신앙체계 내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및 『옥추경』과 관련된 연관성을 시사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이를 정확히 드러내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현재 시작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존의 『옥추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본격화 되고 있지는 못하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추후 과제로 남았지만 본 연구가 대순진리회 전통과 옥추경 전통에 대한 비교 연구 및 새로운 대순신학 전개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82) 1989. 4. 12 우당 훈시. 『훈시』, 대순종교문화연구소(내부자료), 2011.

83) 『전경』, 교운 2장 55절.

84)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注』上, 『道藏』, 第2册, p.569.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요람』, 1969.
- 『도전님 훈시』, 내부자료, 1981.
- 『전경』, 1974.
-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본부, 1956.
- 『玉樞寶經』 계룡산본(鷄龍山本), 계룡산, 1888.
- 『普天教誌』, 보천교, 1964.
- 『이조실록』 310권, 평양: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1993.
- 葛兆光, 『道敎와 中國文化』, 沈揆昊 옮김, 서울: 동문선, 1993.
- 구보노리따다, 『도교사』, 최준식 옮김, 칠곡: 분도출판사, 1990.
- 구중희, 『옥추경 연구』, 서울: 동문선, 2006.
- 김승동 편저, 『도교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 김재수, 『2012년 대전환』, 서울: 히어나우시스템, 2008.
-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한국 종교교단의 조직적 특성』, 2012년 학술지.
-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0.
- 이능화 편술, 『조선도교사』, 이종은 역주, 서울: 보성문화사, 1996.
- 이슬, 「도교 경전 『옥추경』의 민간전승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5-2, 2009.
- 이정립, 『증산교사』, 전북: 증산교본부, 1977.
- 이중성 편저, 『천지개벽경 주해』, 이효진 주해, 서울: 도서출판 금산하우징, 1996.
- 村山智順 著, 『朝鮮의 類似宗教』,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최준식, 『한국종교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 허시성 편저, 『玉樞寶經』, 서울: 경서원, 2009.
- 혜경궁 홍씨, 『한중록』, 이선형 옮김, 파주: 서해문집, 2003.
- 홍범초, 『汎甌山敎史』, 서울: 도서출판 한누리, 1988.

- 히라카와 스케히로,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노영희 옮김, 서울: 동서출판 동아시아, 2002.
- 마서전(馬西田), 『중국도교제신(中國道教諸神)』, 대만: 단결출판사, 1996.
- 張繼禹 主編, 『中華道藏』, 北京: 華夏出版社, 2010.
- 張夢道 編著, 『図解 道教』,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 따배, 「茅坤과 王世貞의 교유와 그 공통적 지향점」, <http://chubai.blog.me/20118101610>, 2010.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역대인명사전, 2010. 1. 20, 이회문화사.
- [네이버 지식백과], 고전해설ZIP, 2009. 5. 10, 지만지.
- [네이버 지식백과],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2010. 3. 24, 다락원.
- 中華道教新聞報, <臺灣道教月曆 2013年>.

▪Abstract▪

## 关于“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的韩中制度圈的对应

- 以『玉枢经』的认识为中心 -

朴龙哲

大真大学

本论文是关于“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的信仰，是亚洲特别是在韩国和中国所具有的地位，是怎样演变过来的，同时还要考察它所蕴含的意义。即是在不能清楚的理解对“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的基本信仰的状态下，关于对大巡真理会的传统信仰“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进行讨论时，稍有不慎便有可能出现非合理性的矛盾理论。所以作为关于中国和韩国的『玉枢经』的混乱和误会的再声明，历史的长流所带来的对『玉枢经』的误导，通过容纳和批判一起作为对关于大巡真理会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的神学的基础解说。

中国元朝的时候道教是非常受敬重的，然而在道教和佛教辩论时，道教惨败之后(1256年，1281年)，在道教的衰退期时，因道人们的意愿，“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显现，并且记录了天尊所说的话的『玉枢经』，在明世宗(在位：1521-1566年)以后开始遭到士大夫和外面的百姓们的抨击。理由是明世宗热衷于研制“不死药”，而在政治上荒唐朝政。还有从严嵩开始受到政治镇压的王世贞第一次对『玉枢经』作出了学者性的误导解说，这使给受到明朝文化影响的朝鲜的士大夫，传达了对『玉枢经』误导，这也是成为传播到朝鲜重要证据。

从朝鲜建国开始，虽然当时儒教作为国家的统治理念，但是作为消

除国家灾难的神位，在朝鲜初期时得到了很多优待的事实在许多文献里都有体现。这样一本记录了受到优待的“雷声普化天尊”教导的『玉枢经』，因英祖的儿子思悼世子读过这本书之后便开始生病(1752-1762年)，作为世子不只是在政治上没有力量，反而父亲英祖先被杀害。这样类似的事件使『玉枢经』从左序那里得出被驳倒的结果，再进一步，『玉枢经』在政治方面和学文方面同时受到世俗抨击。

介于这样相同的中韩脉络对『玉枢经』的认识，“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作为道教的最高神位而从主流信仰里被排挤出来。和这一样历史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关于世俗的隐退推移，作为大巡真理会的最高神位重新登场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信仰是关系到大巡真理会的宗统并且是具有时代意义的谨慎的类比推论。

**关 键 词** : 玉枢经, 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 張嗣成, 王世貞, 正統道藏, 惠慶宮 洪氏, 思悼世子, 左書, 李圭景, 偽書

**作者简介** : 朴龙哲, 1960 年生, 工學碩士, 宗团大巡真理会 教監, 大真大学校 大巡宗学科 教授

-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3년 11월 19일